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요한 클리막스 수사의 하늘로 오르는 사다리

사순절 제4주일

성 요한 클리막스 수사

제7조 / 조과복음 7

성 대바실리오스 성찬예배에서

· 제7조 부활 찬양송 / 82, A 217

· 주일 입당송 / 46, A 139

· 성 요한 클리막스 수사 찬양송 / 비고정 축일
성가집 46

· 성당 찬양송

· 사순절 시기송 / 223, B 276

· 사도경 : 히브리 6,13-20 / 233, 봉독서 454

· 복음경 : 마르코 9,17-31 / 139, B 97

· 성모송 '은총이 가득하신 이여,' / 62, A 171

NCKK 임시 실행위원회 조성암 대주교의 인사말

2017년 3월 16일 목요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매우 중요한 안건들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임시 실행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논의에서 올바른 결론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작성하게 될 대국민 성명서가 어떤 특정한 인물을 목표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우리 믿음의 주관자이신 분의 계명을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그들의 결점을 찾아내어 불리하게 만드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잘못된 행위와 상황에 대해 비판할 권한이 있지만, 잘못된 사람 자체

☞ 2면으로 계속

☞ 1면에서 계속

에 대해서는 비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상에 죄를 단죄하러 오신 것이지, 사람을 단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NCK를 구성하는 여러 교회의 책임자들은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해서는 안 되고, 오직 진리와 정의를 지지해야 하며, 세상 어느 곳에서나 생겨나고 있는 거짓과 불의를 책망해야 합니다.

인간적이거나 정치적인 관계로 인해 지지하거나 비난하면서 정치적 다툼에 교회가 관련되게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그 당대뿐 아니라 먼 미래에까지도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항상 끼쳤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서방 사회에 무신론이 확산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로부터 멀어지게 된 주된 원인으로, 멀리는 십자군 원정에 교회가 개입했던 것과 최근에는 제2차 세계대전에 관련되었던 역사적인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헌법과 법률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투쟁은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확산하며, 국민들을 존중하는 데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민주주의의 봉사자들이 국민을 우롱하며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항상 그들의 잘못을 책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여러 대통령들의 마지막이 좋지 않았던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큰 문제가 되었던 권력의 남용 때문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모두는 “이 땅 위에는 우리가 차지할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앞으로 올 도성을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라는 성서 말씀을 상기해야겠습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영원함’에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들’을 향한 이타적인 사랑을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나라의 정치인들에게 지혜의 빛을 주시기를 바라고, 힘들고 위태로운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서, 최근 4개월 동안 우리 국민들을 개탄케 한 중대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신중함과 겸손함과 하느님에 대한 경건함을 가지고 오늘의 논의에 임할 수 있기를 열렬히 기원합니다.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정교회 대주교



성 이삭 시리아인(7세기)II

이삭 성인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는 수도사로서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동료 수도사들을 위해 글을 썼습니다. 성인의 가르침은 분명한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 없는 금욕가(수도사)는 열매가 없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성인은 우리가 몸의 팔과 다리처럼 서로 연결된 존재이며, 우리의 삶은 곧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십자가의 경험과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음을 통해 우리는 이미 지금 이곳 지상에서 부활의 기쁨을 발견합니다. 이 기쁨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옴아매는 모든 결박들에서 풀려나 장차 올 세상(하느님의 나라)을 미리 맛봅니다.

궁극적으로 이삭 성인이 바라본 것은 모든 창조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파충류를 포함한 동물들도 그런 회복의 한 부분을 이룹니다. 성인이 사막에 살았으며 따라서 실제로 뱀을 만나기도 했으리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악마조차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작용하고 있는 사람은 악마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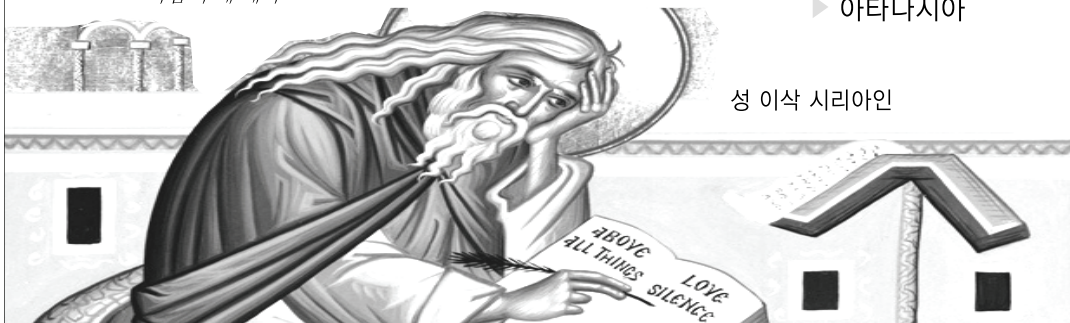
우리 시대에 살았던 러시아인 수도사, 아토스 성산의 실루아노스 성인에 얽힌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누군가가 무신론자들에 대한 영원한 형벌에 대해 말했을 때, 성인은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그런 것(상황)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신론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인은 하느님의 크나큰 은총에 대한 경험으로 완전히 압도되었으며, 죄와 죽음이 극복된 이후에 그 은총이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 올리교야 말 것이라는 사실에 몹시 놀라워 했습니다. 이런 하느님의 사랑이 있는 한, 절망이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만일 사람의 죄가 크다면, 하느님의 사랑은 언제나 더 큼니다.

저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 직접적으로 말을 건네는 다양한 성인의 가르침들을 여러 편 골라보았습니다. 이 글들은 모두 수도사들이나 수도생활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전적으로 그런 상황들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음 주에 계속

▶ 아타나시아



성 이삭 시리아인

소 식

대교구

■ **성화 수업** ▷ 소존 야누디스 성화작가께서 다시 한 번 한국에 오셔서 성화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에서 5월 1일-26일까지 있을 성화 수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3월 26일까지 꼭 수도원으로 연락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도 수도원에 문의해주시시오.

☎ 수도원 032 584 2082 / 010 4845 5378
(오전 10시-12시 사이에만 전화 연락이 됩니다.)

■ **구세주 변모 수도원 정원 조경 공사** ▷ 그리스에서 정원 조경 전문가가 오셔서 4월 30일-5월 5일까지 수도원의 정원을 다양한 나무와 꽃들로 아름답게 꾸며 주실 것입니다. 함께 봉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4월 9일까지 수도원에 연락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원 032 584 2082 / 010 4845 5378
(오전 10시-12시 사이에만 전화 연락이 됩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부활절 준비 화단 조성**과 성당 대청소 ▷

부활절 준비의 일환으로 오늘 성찬예배를 마치고 사랑의 오찬 후에는 성당 화단에 꽃을 심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4월 2일에는 성당 대청소가 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축일인 부활절을 위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경건하고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합니다.

■ **예배 시간 안내**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는 대사순절 기간 동안 매주 두 번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를 거행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수요일 오전 9시, 금요일 오전 9시**에 거행됩니다.

그리고 **수요일 오후 4시 30분**에는 일 년에 한 번 드리는 **대카논** 예식이 거행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 **부활절 꽃, 달걀 봉헌 신청** ▷ 예년과 같이 부활절 달걀과 예삿파빠오스 꽃 장식 봉헌을 신청받습니다. 부활절 달걀은 성당에 기증하는 부분과 신자가 가져가는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성당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달걀 가격도 사무실로 문의해 주십시오.)

사순절 제5주간 예식

- 화·목요일 오후 5시 ▷ 석후대과
- 29일(수) 오전 9시 ▷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 오후 5시 ▷ 대카논
- 31일(금) 오후 6시 ▷ 성모 기림 찬양
(자세한 예배 시간은 각 성당에 문의 바랍니다.)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